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3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21ㄴ-28)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씹는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21ㄴ-28

오늘 복음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권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며 감탄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출발시점에서 악령의 증언이 제시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합니다. 악마의 활동 목적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악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간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차오르는 불만이 대단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터라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 악령의 고백을 주님께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악령의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말로 옮기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왜 악령들이 그분 말씀에 굴복할까?’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그분 가르침의 신선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등에 관해서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분은 멀리 있어 아득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일터에서 수고하며 집안을 돌보는 아버지처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분이란 가르침이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세리나 창녀, 병자,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더러운 악령 때문에 시달림 당하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손길이 자녀들을 향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과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권위 또한 사랑을 담은 봉사가 그 바탕이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주눅 들게 하는 엄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봉사와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서 분명히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복음말씀은 우리들도 그분의 권위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님’이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닌 벗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권위를 드러내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동참하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눈을 돌려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에 관해서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가겠지요?

(수원교구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희망찬 201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고 건강한 성가정과 번창하는 소공동체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2월부터 개강하는 수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35,1-41,57

◆ 성경 퀴즈

*창세기 35,1-29까지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 ()
2.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 주석 참조) ()
3.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고 죽은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나? ()

*창세기 37,1-36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 야곱이 열 두명의 아들 중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이었다.
6.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 그에게 () 없었다.
7. 요셉의 꿈 : 내 곡식 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 단이 빙 둘러서서 ()을 하였답니다. 해와 달과 별 ()가 나에게 ().
8. 요셉의 형들은 멀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9. ()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에게 은 전 ()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로 데리고 갔다.

*창세기 39,1-41,57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 요셉을 종으로 산 이집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11. 포피파르의 집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감옥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은 무엇인가?
12. 요셉이 풀이한 꿈들에 관한 해몽의 의미를 채우시오.

헌작 시종장의 꿈	세 개의 포도나무가지와 술잔	?
제빵 시종장의 꿈	세 개의 과자 바구니와 구운 빵	?
파라오의 꿈	일곱 마리의 암소들과 일곱 이삭	?

*도전 문제

형제들과의 갈등과 버려짐, 노예로의 전락, 여인의 유혹, 모함과 투옥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절대적인 신뢰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자애로 함께 계셔 주십니다. 창세기 39,1-6과 39,21-23, 이 두 성경 말씀을 서로 연결하여 읽어봅시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던 이들의 철저한 믿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시련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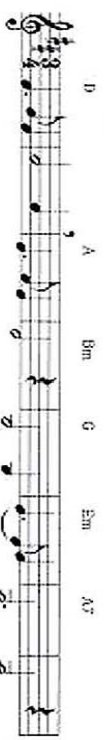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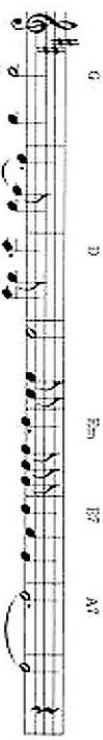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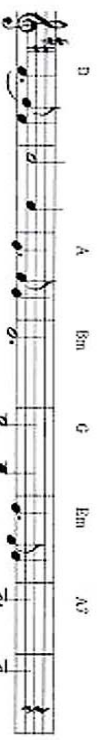
정수원 작곡
정수원 편곡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임할 무야



종교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전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